

경주 남산

가이드북 ⑦

경주남산

고위산 가는 길



CONTENTS

고위산 가는 길	3
쉽게 찾아가는 고위산 가는 길	4
⑪서출지	6
⑫남산동 동서삼층석탑	7
⑬염불사지	8
⑭승소곡 절터	9
⑮천동곡 천동탑	9
⑯칠불암 마애불상군	10
⑰신선암 마애보살반가상	12
⑱지곡 모전석탑	13
⑲고위지	13
⑳열반골	14
㉑관음사	14
㉒범굴바위 절터	15
㉓은적암	15
㉔천룡사	16
㉕와룡통천과 와룡사	18
㉖열암곡 1사지	19
㉗열암곡(새갓골) 석조여래좌상	20
㉘열암곡(새갓골) 마애여래입상	21
㉙열암곡 3사지, 2사지	22
㉚봉수대	22
㉛침식곡 석조여래좌상	23
㉜백운암과 백운대	24
경주남산 팔경, 전망 좋은 곳,	25
경주남산 지정 문화재	
경주남산 유적 답사 안내	26
경주남산 내비게이션 주소 목록	27



慶州南山研究所

The Research Institute of Mt. Namsan in Gyeongju, Korea (THE RING)

사단법인 경주남산연구소는

많은 사람들이 경주 남산의 아름다움과 곳곳에 깃들여 있는 가치를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주 남산의 문화유적을 널리 알리고, 유적을 보전하고 연구하며, 아울러 남산의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퍼낸이 (사)경주남산연구소

www.kjnamsan.org

E-mail: kjnamsan@hanmail.net

경북 경주시 태종로 711번길 15(노서동)

Tel. 054-777-7142

Fax. 054-776-7142

퍼낸날 2018년 10월 1일

기획 및 디자인 디자인팀 054. 745. 5521

이 안내책자는 경상북도와 경주시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동도 남산의 남쪽에

한 봉우리가 홀연히 솟아 있는데 속칭 고위산이라 한다.

금오봉과 마주하여 남쪽으로 이어지며 해발 494m로 남산의 최고봉이다.

동쪽 봉우리에는 봉화대와 신선암, 칠불암이 있고,

계속하여 봉화대능선으로 이어져 이영재를 지나 금오봉으로 이어지고,

남쪽으로는 천왕지봉을 거쳐 정씨 시조묘로 나아가고,

멀리 마석산과 치술령을 마주보고 있다.

남서쪽으로는 용의 등에 해당되는 바위 능선과 용두암(龍頭巖)으로 이어져

천룡사 넓은 고원이 펼쳐져 있으며,

천룡사에서 북쪽으로 넘어가면 기승지(奇勝地)인 열반계가 있고,

서쪽으로 내려가면 와룡통천(臥龍洞川)과 와룡폭포가 있다.

북서쪽으로는 열반재와 황발봉으로 이어지는 능선,

북쪽으로는 이무기 능선과 쌍봉으로 이어지는 능선이 펼쳐지고 있다.

이 고위산으로 오르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으나, 대표적인 길은 다음과 같다.

1. 통일전에서 칠불암을 지나 고위산으로
2. 금오봉에서 봉화대능선을 거쳐 고위산으로
3. 용장에서 열반곡을 거쳐 고위산으로
4. 용장에서 이무기능선을 올라 고위산으로
5. 용장에서 은적암을 거쳐 고위산으로
6. 와룡사에서 고위산으로
7. 열암곡에서 고위산으로

이 안내책자는 고위산 가는 길을 약도로 표시하고, 주변에 있는 문화유적을 안내하고 약도에 각 유적의 번호를 표기하여 본문에서 찾기 쉽도록 편집하였습니다.

○ 서출지¹¹⁾

(사적 138호)

통일전주차장 남쪽에 조그마한 연못이 있다. 연못가에 배롱나무 꽃이 만발할 때 남산과 함께 바라보는 이요당(二樂堂)의 경치는 한 폭의 수채화다. 연못에는 연꽃이 가득 핀다.

이 연못에는 『삼국유사』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 온다. 신라 21대 비처왕(소지왕)이 즉위한 지 10년 되던 해(488) 정월 신하들을 거느리고 천천정(天泉亭)에 행차할 때 까마귀와 쥐가 와서 울었다. 쥐가 사람의 말로 이르기를, “이 까마귀 가는 곳을 찾아 가 보시오.” 하였다. 기사(騎士)에게 명하니, 남산 동쪽 피촌(양피사촌)에 이르러, 돼지 두 마리가 싸우고 있는 것을 구경하다가, 문득 까마귀가 날아간 곳을 잃어버렸다. 이 때 한 늙은이가 못 속에서 나와 글을 올리니, 곁봉에 쓰기를 “떼어보면 두 사람이 죽을 것이고, 떼어보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을 것이다” 하였다. 왕이 “두 사람이 죽는 것보다는 떼어보지 않고 한 사람만 죽는 것이 낫겠다.” 하니, 일관(日官)이 “두 사람은 서민이요, 한 사람은 왕입니다” 하였다. 왕이 봉투를 열어보니, 「거문고갑을 쓰라」고 쓰여 있었다. 궁중으로 돌아와 거문고갑을 쓰니, 내전의 분수승(焚修僧)과 궁주(宮主)가 몰래 간통(奸通)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처형하였다. 이로부터 나라 풍속에 해마다 정월의 상해(上亥), 상자(上子), 상오일(上午日)에는 모든 일을 조심하고 꺼려 함부로 움직이지 않으며, 정월 16일을 오기일(烏忌日)이라 하여 찰밥을 지어 제사 지내니, 지금까지도 이를 행하고 있다. 이후 이 못을 서출지(書出池)라고 하였다.

이 연못에 1664년 임적선생이 이요당을 짓고 연꽃과 배롱나무를 심어 자연을 즐기며, 선비의 고고한 심성을 수련했다.



○ 찾아가기

경주시내에서 11번 버스 탑승 후 통일전 앞에서 내리면 된다. 승용차는 통일전 주차장을 이용한다.

📍경주시 남산동 932-1

○ 남산동 동서 삼층석탑¹²⁾

(보물 124호)

『삼국유사』의 염불스님 이야기에 나오는 양피사지로 추정되는 곳에 동서로 삼층석탑 2기가 서 있다.

서탑은 이중기단으로 된 일반적인 양식으로 석가탑에 버금가는 조화와 균형미를 갖춘 아름다운 탑이다. 상층 기단에는 팔부중상을 조각했다. 팔부중은 원래 힌두의 신들이었지만 불교에 수용되어 불법을 수호하는 호법신이 되었다. 남면 오른쪽의 건달바상은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는 신인데 사자탈을 쓰고 있으며, 왼쪽 아수라 상은 얼굴이 셋이고 팔이 여덟개로 손마다 무기를 들고 있으며 위로 올려든 손에는 해와 달이 들려있고, 배앞에 있는 손에는 해골이 들려 있다. 동면 왼쪽의 야차상은 귀신 나라의 왕으로 염주를 입에 물고 손으로 헤아리고 있다. 오른쪽은 용왕으로 머리에 용관을 썼고 손에는 여의주가 들려 있다. 북면에는 얼굴 좌우에 소머리와 말머리가 달려있는 긴나라와, 뱀의 신 마후라가가 새겨져 있고, 서면에는 금강저를 들고 있는 천(天)과 주둥이가 독수리 부리의 새의 신 가루다가 새겨져 있어 보는 재미를 더한다.

동탑은 광대한 이중의 지대석 위에 세운 전탑의 양식을 띠고 있는 모전석탑이다. 동탑은 곳곳하고 힘차게 솟아있어 남성답고 서탑은 부드럽고 화려하여 여성스럽다.

이 탑은 불국사의 석가탑·다보탑처럼 형식을 달리하는 쌍탑으로 알려져 왔으나, 양 쪽 탑 지면의 높이가 다르고, 동서 축이 달라서 별도의 탑으로 확인되었다.



○ 찾아가기

서출지를 지나 남산동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간다. 석탑 부근 주차할 장소가 있다. 서출지에서 도보로는 5분소요.

📍경주시 남산동 226-2

○ 염불사지¹³

양피사지에서 다시 남으로 700여 m 가면 절터에 탑 2기가 있다. 1기는 불국사 역전에 있었고, 1기는 발 가운데 무너져 있던 것을 2009년 본래 자리에 복원했다.

탑은 이중 기단 위에 장중하게 세워졌으며 층간 체감울과 옥개석, 탑신 사이의 공간이 넓어 시원한 느낌을 주고 있다. 상하층 기단 모두 탱주가 2개씩 새겨져 있어 석기탑과 같은 시대인 8세기 중엽의 탑이다. 탑은 본래 자연스런 바위 무더기 위에 세워져 있었으나, 복원하면서 깎은 돌로 반듯하게 축대를 쌓아올려 흉물스럽게 되어버렸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남산 동쪽 기슭에 피리촌이 있고, 동네에는 피리사라는 절이 있었다. 절의 스님은 늘 아미타불을 염하는데 그 소리가 성안에까지 들려 360방 17만호에 들리지 않은 곳이 없었다. 높고 낮음이 없는 소리는 한결같이 낭랑하여 모두가 그를 공경하여 염불스님이라 불렀다. 그가 죽자 소상(塑像)을 만들어 민장사에 모시고 그가 본래 살던 피리사를 염불사로 고쳐 불렀다. 이 절 옆에 또 절이 있는데 마을 이름을 따서 양피사라 했다.” 한다.

이 탑은 복원할 때 스리랑카 종교부장관과 국회의원의님이 친히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고 와서 봉안하였다. 새로운 전설이 시작되고 있다. 염불스님의 염불소리가 실바람을 타고 낭랑하게 들려오는 듯하다.



○ 찾아가기

양피사지에서 남산동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간다. 주차장이 있다. 양피사지에서 도보로는 약 10분 소요.

📍경주시 칠불암길 125

○ 승소곡 절터¹⁴



칠불암 오르는 길 간이 화장실 부근에서 오른쪽으로 500m 정도 들어가면 계곡 막바지에 절터가 있다. 큰 바위산을 배경으로 하고 뽕어 내린 산맥들이 겹겹으로 터를 감싸고 둘러막은 아늑한 곳이다. 건물터는 남북으로 두 곳에 넓게 펼쳐져 있다.

이 절터에서 삼층석탑 1기가 무너져 있었는데, 1941년 경주박물관으로 옮겨 복원하였다. 하층기단과 상층기단에는 각 면마다 안상을 2개씩 새기고, 1층 탑신에는 면마다 안상을 새겨 그 안에 사천왕상을 조각하였다. 9세기에 조성된 높이 361cm의 아담한 탑이다.

○ 천동곡 천동탑¹⁵



칠불암 입구 화장실에서 개울을 2개 건너고, 오르막을 오르다 2번째 민묘에서 오른쪽 숲속으로 500m 정도 올라가면 절터가 있다. 천동골에는 폐탑재 1개소, 디달방아터 1개소, 천동탑 2기, 선방터 1개소, 금당지가 남아 있다.

금당지의 축대는 일부가 무너졌는데, 천동탑은 금당지 정면에 1기가 세워져 있고, 계곡 쪽의 무너진 축대에 1기가 뒹굴고 있다.

천동탑은 자연석에 가까운 돌기둥에 각각 작은 감실을 100여 개씩 파놓은 특이한 형식이다. 계곡 이름이 천동골로 불리는 것은 이 돌기둥이 중국 석굴의 천불동을 모방한 탑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 칠불암 마애불상군¹⁶

(국보 312호)

남산의 마애불상 가운데 걸작 중의 걸작으로 꼽히는 칠불암 마애불상군과 신선암 마애보살 반가상까지는 1시간 정도 걸어 올라가야 한다. 칠불암 마애불상군은 동남산에서 깊은 골짜기로 꼽히는 봉화골에 있으며, 사방불과 삼존불 등 일곱 불보살상이 남아 있는 곳에 근세에 한 암자를 지었고 칠불암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곳에서 발견되는 힘차면서도 화려한 기와무늬며 귀인들이 기도 드리고 중병을 고쳤다는 비석조각들로 보아 나라에서 경영하던 큰 절이 있었음을 알 수 있지만 신라 때 절 이름은 알 수 없다. 절은 경사가 가파른 험한 산등성이에 세워졌다. 절터에 올라서면 감탄이 절로 나온다. 거대한 바위 절벽의 불상군이 압도적으로 두 눈에 가득 찬다. 바위 절벽 종턱에 좁은 터를 만들기 위해 돌 축대를 이단으로 쌓았다. 그 위에 터를 조성하고 바위를 병풍처럼 깎아 석가삼존불을 높은 돌을새김으로 새기고, 그 앞을 단을 쌓아 바위에 사방불을 새겼다. 동면은 동방유리광세계 약사여래이고, 서면은 서방정토극락세계 아미타불이다. 남면과 북면은 정확히 알 수 없다.

남산에 화려한 화엄불국토이다.

○ 찾아가기

염불사지 석탑 앞에서 칠불암으로 향하는 등산로가 잘 나 있다. 염불사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걸어 올라간다. 1시간 소요. 칠불암에서 약 10여분 올라가면 신선암이 있다. 왕복 2시간40분 소요. (통일전에서는 3시간 20분)
(대형차량은 통일전 주차장 이용)

📍경주시 남산동 1129-3



높이 5m, 너비 8m로 병풍처럼 솟아 있는 절벽 바위 면에 거의 입체상만큼이나 높은 돌을새김으로 새겨진 삼존불은 규모와 솜씨 모두 남산불상 중 으뜸이다. 석굴암 불상보다 이른 통일신라 불교미술 발전기의 불상 중 최고 걸작으로 꼽힌다. 남산에 있는 문화재 중 유일한 국보이기도 하다. 이 불상들은 신라 불교미술의 발전기로 꼽히는 7세기 말에서 8세기 초에 조성된 것으로 그 시대 최고의 걸작이다.

지금까지 이 불상들은 중심주굴(中心柱窟: 중심에 불상을 새긴 기둥이 있는 석굴)의 형식으로 보아 왔으나, 앞의 사방불은 부근에 쌓여져 있는 석탑 옥개석과 함께 1층 사방불탑이었으나, 절이 폐사가 된 후 어느 때가 마애삼존상 앞에 축대를 쌓고 이곳으로 옮겨온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자세히 관찰하면 마애삼존상과 사방불의 조각에는 시대를 달리하는 양식적 특징이 보인다.

○ 신선암 마애보살반가상¹⁷

(보물 199호)

신선암은 칠불암 삼존불의 배경이 되는 바위의 높은 벼랑 위에 있다. 칠불암 마애불상군의 옆으로 난 길을 따라 바위 절벽을 오르면 기묘한 바위들이 절경을 이루어 마치 하늘로 향하는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 같다.

힘들게 올라 마침내 넓은 바위산 중턱에 닿으면 수십 길 낭떠러지가 눈앞에 펼쳐진다. 이곳을 돌아가면 신선암 마애보살반가상이 새겨져있다. 서라벌 벌판이 한눈에 펼쳐져 가슴이 확 트이는가 싶더니, 뒤돌아서 보살상과 마주치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진다. 보살상의 모습 또한 신비롭다. 보리수 잎 모양의 감실을 파고 구름 위에 의자를 놓고 의자 위에 편안히 앉아 계신다. 오른손엔 꽃가지를 들고 왼손은 설법인(說法印)을 하고, 도솔천 하늘을 유유히 노니시는 모습이다. 표정 또한 미소를 머금은 듯 아닌 듯 초연한 모습이다.

잠시 앉아 보살상의 눈높이로 세상을 보면 나도 또한 도솔천의 보살이 된다. 이곳이 바로 서라벌 남산의 도솔천이다. 세상은 푸른 소나무 파도를 지나 서라벌의 넓은 바다에 닿아 있다. 멀리 산봉우리들이 농담(濃淡)을 달리하며 섬처럼 떠 있다. 어느덧 시끄럽던 마음도 가라앉고 이 순간만큼은 유유자적 보살상과 함께 도솔천 하늘을 노닐고 싶다. 이곳에 도솔천의 미륵보살을 새긴 옛 신라인들도 같은 마음이었을까?

수십 길 낭떠러지 위에 놓인 바위에 새겨진 이 보살상은 남산에 있는 불상들이 어떻게 자연과 어우러져 있는지 잘 보여 준다. 남산의 불상들은 조각가의 솜씨를 뽐내기 위하거나, 또는 무엇인가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것이었다. 신라의 석공들이 바위 속에서 부처의 모습을 찾아내었을 뿐 ...

이 보살상은 일반적으로 관세음보살로 해석하고 있으나, 도솔천의 미륵보살로 보는 것이 주변 모습과 더 어울릴 것 같다. 신라불교미술의 전성기인 8세기 후반에 조성되었다.



○ 지곡 모전석탑¹⁸

(보물 1935호)



신선암 뒷 봉우리에서 산정호수로 내려가는 길 왼쪽에 민묘가 1기 있다. 이 민묘 주변이 절터이며, 민묘 안쪽 골짜기 건너에 모전석탑이 아담하게 서 있다. 2002년에 복원되었다. 단층 기단 위에 삼층으로 세운 전탑(벽돌탑)을 본뜬 석탑이다. 기단은 직사각형의 석재 여덟 개를 포개어 사각형으로 쌓았는데, 돌의 크기가 달라 돌과 돌들의 이음줄이 서로 어긋나게 표현되어 있다.

이층과 삼층 옥개석의 모서리에는 풍탁공이 남아 있는데, 아래에서 위로 뿔려 있다. 그런데 1층 옥개석은 풍탁공이 없다. 한 쪽 깨진 모서리를 보면 1층의 풍탁공은 위에서 아래로 뿔려 있는 것이 보인다. 또한 옥개석의 층급받침은 각층 4단 3단 2단이며, 삼층 탑신

이 비스듬히 나뉘어져 3층과 2층의 옥개석에 붙어 있다. 이러한 모습들은 다른 탑에서는 그 예를 보기 어려운 특이한 모습이다.

전체적으로는 남산리 삼층석탑의 동탑(7쪽 참조)과 같은 형식인데 규모가 약간 작고 시대도 조금 떨어진다. 9세기에 조성되었다.

○ 고위지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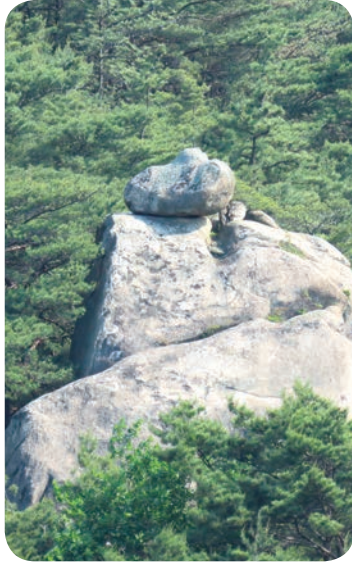


1950년대에 농업용수로 축조하였으나,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다. 남산 속에 있는 유일한 인공호수로서 깊은 용장계곡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어울려 신비감을 준다. 특히 가을 억새가 피었을 때 주변 단풍과 어우러진 가을 산의 풍취가 아름답다.

○ 열반골⁽²¹⁾

고위산 정상에서 서북으로 흘러 웅장계의 분류로 흘러오는 큰 골짜기가 열반골이다. 이 계곡에서 산등을 넘으면 천룡사에 이른다. 이 계곡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온다.

옛날 신라시대 어느 재상에게 아름다운 딸이 있었는데, 어려서부터 용모와 마음이 고와 여러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꽃다운 나이를 맞이하니 많은 젊은 사내들이 사랑을 호소하고 때로는 금력과 권력으로 유혹하였다. 처녀는 마침내 반잡하고 시끄러운 속세를 떠나 열반의 세상에서 살 것을 발원하고 집을 나섰다. 부모의 사랑도, 여러 사람들의 선망도, 화려한 옷도, 맛있는 음식도, 속세의 인연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맑고 청정한 부처님의 세계로 찾아 들었다. 경의암에서 머리를 깎고 먹물 옷을 갈아입고 골짜기로 들어섰다. 그러나 꽃같이 피어나는 살 향기를 감출 수는 없었다. 못 짐승들이 몰려오고 있었다. 고양이바위, 개바위, 여우바위, 산돼지바위, 작은곰바위, 뱀바위, 귀신바위 등 기묘한 바위들이 골에 가득 차 있다. 처녀는 무섭고 험난한 길을 헤치고 정진하여 마침내 산등성이 위에 올라 똥바위에서 똥을 누고(웃을 갈아 입었다는 것은 수행자의 모습으로 변화했다는 것이고, 똥을 누었다는 것은 내면에 있는 번뇌의 찌꺼기까지 뺀 내었다는 의미이다) 산 위에서 지팡이를 짚고 내려오는 할미바위(지장보살)를 만나 그분의 안내로 고개를 넘으니 열반의 세계인 천룡사에 이르게 되었다 한다.



○ 관음사⁽²²⁾



옛 절터에 근세에 세워진 절이다. 주변에는 많은 기와조각들과 석탑 기단면석 1매, 옥개석 4매가 남아 있으나, 총급반침, 탑신 괴임 등이 달라 2개 이상의 석탑재로 보인다. 대웅전 부근에는 큰곰바위, 범바위, 용바위, 이무기바위, 거북바위 등이 보인다.

○ 범굴바위 절터⁽²³⁾

열반골은 두 갈래이다. 도로를 따라 관음사로 이어지는 골이 있고, 또 하나는 천우사의 왼쪽 이무기능선으로 올라가는 입구에서 범굴바위로 오르는 골이다. 범굴바위는 골짜기에서 능선으로 이어지며, 큰 굴이 있어 범굴로 불리어 지며, 옛날에는 선방 토굴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나, 근세에 와서는 무속인의 산신기도처로 오랫동안 애용되어졌다.

절터는 범굴바위의 건너편 대나무 숲 일대에 많은 축대가 있어 큰 사찰이었던 것이 확인된다.

계곡 위쪽의 길이 9m 정도의 절터 오른쪽에 2개의 옥개석이 흩어져 있는데, 각각 옥개석 상면에 위층의 탑신이 붙어 있는 작고 아담한 삼층석탑으로 추정된다.

이 축대에서 북쪽 대나무숲 속에 비파바위가 있다. 『동경잡기』에 ‘비파바위 - 금오산에 있다. 바위 위에 돌이 누어 있는데, 마치 비파의 형상이다.’ 라고 한 것이 이 바위이다. 한 때 이 곳이 『삼국유사』의 <진신수궁>조에 나오는 불무사지로 추정되기도 하였다.



○ 은적암⁽²⁴⁾

은적암은 웅장계곡 분류로 오르다가 은적골로 접어 들어가야 한다. 은적골 분류로 오르다가 다시 왼쪽 쌍봉 방향의 능선으로 오르면 2곳의 축대가 있다. 이곳이 은적암이다. 이곳은 능선에 위치하기 때문에 배경은 별다른 것이 없지만, 앞으로 내다보이는 정경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선경이다. 이무기능선의 봉우리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안산을 이루고 있다. 은적암은 김시습이 한 때 은거하던 곳이라 하여 이름지어졌다고 전해진다. 절터에는 9세기의 석탑재가 남아 있어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되었음을 알 수 있고, 유익건(1687~1760)의 은적암중건기가 남아 있어, 18세기에 중건되었다가 다시 폐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천룡사지²⁵⁾

『삼국유사』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동도의 남산 남쪽에 한 봉우리가 우뚝 솟아 있는데, 속칭 고위산이라 한다. 산의 남쪽에 절이 있는데 속칭 고사(高寺) 혹은 천룡사라고 한다. 중국사신 약봉구가 와서 보고 말하기를, '이 절이 파괴되면 나라가 곧 망할 것이다'라 했다.

또 전하는 말에 옛날 단월(檀越)에게 두 딸이 있어 천녀와 용녀라 하였다. 양친이 두 딸을 위하여 절을 세우고 이름으로 삼았다. 경지가 이상하여, 불도를 돕는 도량이었는데 신라 말에 파괴되어 폐허가 된지 이미 오래되었다. 중생사의 관음보살이 절터에 기른 최은함의 아들이 승려였다. 승려가 숙을 낚고 숙이 시중 제안을 냈었는데, 제안이 이 절을 중수하여 없어졌던 절을 일으켰다. 그리고 석가만일도량을 설치하고, 조정의 명을 받아, 시서와 원문을 절에 남겨 두었다. 그는 세상을 떠나자 절을 지키는 사이 되었는데 자못 신령스럽고 이상한 일들을 많이 나타내었다.



천룡사는 고신라시대에 창건되어 신라말에 파괴되었던 것을, 고려초 최제안이 중수하여 조선말 까지 법등이 이어졌던 절이다.

문헌자료와 발굴유물을 살펴보면, 중종 34년(1548) 건물을 중수하였고, 숙종 6년(1680) 분황사 보광전 중수에 도움을 주었고, 숙종 14년(1688)에는 『묘법연화경』을 간행하였으며, 이해에 『산중일기』를 쓴 정시한이 하루를 머물다 갔으며, 숙종 19년(1693), 숙종 33년(1707), 숙종 39년(1723)에 건물을 중수하였고, 영조 22년(1750)에는 법광사(포항) 석가불사리탑중수에도 도움을 주었던 기록이 있다.

또 천룡사는 산천경개가 좋아 일찍부터 수많은 문인들이 시문을 남겼는데, 조선초 김시습의 시로부터, 조선말 이능경(1857~1929)의 시(登天龍寺二首)가 남아 있어 19세기 말까지 향화가 피워 올랐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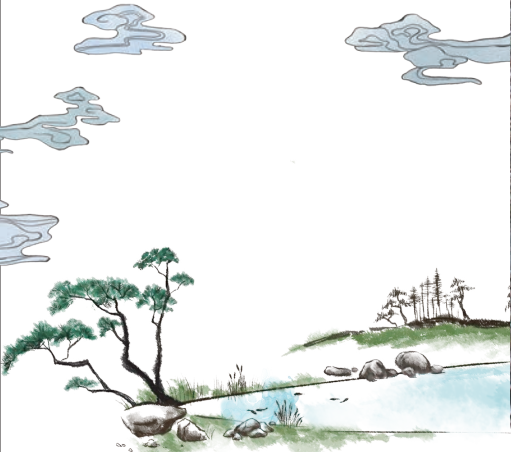
경내에는 삼층석탑(보물1188호, 1994년 복원)과 석조 2기, 귀부, 멧돌과 수많은 주춧돌과 석등대석 등이 남아 있어 사찰의 규모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절의 북쪽 부도밭에는 여러 기의 부도대좌가 남아 있으며, 이곳의 부도는 아래 연못 주변에 2기가 있고, 와룡사에 2기가 전한다.

이 절 위에는 일제 강점기에 세운 또 하나의 천룡사가 있다.

○ 와룡통천과 와룡사²⁶⁾

경주 최부자의 7대 용암 최기영(1768~1834)이 1814년 채산조수(採山釣水)하면서 은거하기 위하여 와룡암을 지었다. 주변에 진기한 나무와 화훼를 심고 물을 끌어다 못을 만들어 경관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서책을 쌓아두고 스스로 흡족한 삶을 즐기니, 각지 문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이후 법당을 만들고 목불을 모셔서 가문의 평안과 강령을 기원하였으며, 1982년 실화로 법당은 소실되었다. 입구에 와룡통천(臥龍洞天) 비석이 있고, 계곡에는 와룡폭포가 아름다운 경관을 자아내고 있다. 경내에는 천룡사에서 옮겨온 것으로 전해지는 석종형 부도 2기와 석등 하대석이 있다.



열암곡 1사지³¹⁾ ○

열암곡은 양조암골로도 불리어 진다.

1사지는 열암곡 주차장에서 열암곡 석조여래좌상으로 올라가는 길 중간에서 왼쪽 능선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간 열암곡에 있다.

절터는 뽀아 내린 바위 능선의 끝에 기둥바위 등이 병풍처럼 솟아 있는 풍경을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돌 축대는 2중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13×10m 정도로 마련된 아담한 절터이다.

산산조각 난 불상과 광배 대좌의 조각들이 최근까지 축대 아래에 덩굴고 있었으나, 최근 한 곳에 모아 정리하여 두었다.

항마촉지인을 한 불상은 머리, 허리, 어깨 등 철저히 파괴되어 조선시대의 배불(排佛)의 처절한 모습이 잘 남아있다.

불상대좌는 네모난 복련대석에 중판으로 된 가름한 복련 연꽃이 새겨져 있고, 윗면에는 3단의 중대괴임이 새겨져 있다. 이 불상대좌는 남산에서 3개만 확인되는 방형대좌 중 하나이다.

파괴된 광배는 두광과 신광이 조각된 거신광인데, 두광에는 연꽃을 새겼고, 가장자리에는 화염문을 새겼는데, 간결하고 힘이 넘친다.



○ 열암곡(새гат골) 석조여래좌상³²

(지방유형문화재 113호)

산산이 파괴된 불상이 오랜 세월 폐허가 된 절터를 지키고 있었다. 2005년 10월 경주남산연구소 회원에 의해 부처님 머리가 발견되어 2009년 복원되었다.

불상은 육계가 낮고, 나발은 큼직하게 표현되었고, 얼굴은 양감이 있지만 훼손이 심하다. 넓고 건장한 어깨와 부피감 있는 가슴을 넓게 벌리고 곧게 편 상반신 등 신체는 당당하면서도 안정감이 있고, 법의는 통건이며 비교적 얇게 표현되어 신체의 윤곽이 드러나고, 옷 주름은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고 있다. 광배는 화염문이 있고 당초문과 함께 9구의 화불을 조각하였는데, 조각이 섬세하고 치밀하여 우수한 조형성을 보여준다. 대좌의 상대는 앙련을 3단, 중대 괴임은 3단, 하대는 복련으로 표현하였다.

전체적으로 정면관과 더불어 측면관이 강조되면서 불두가 신체에 비하여 크지 않은 안정적 비례의 조형감은 통일시대 불상조각의 위축되고 정형화 되는 양상과 구별된다. 풍만하면서도 당당하고

안정감 있는 신체 표현, 대좌와 광배의 간결하면서도 섬세한 조각, 몸에 밀착된 법의 등 석굴암 본존불에서 완성된 통일신라시대 조각의 양식과 수법을 따르는 8세기 말~9세기 초 제작으로 추정된다.

이 골은 새гат골이지만, 불상을 문화재로 등록하면서 열암곡 석불좌상으로 명명하였다.



○ 열암곡(새гат골) 마애여래입상³³

석조여래좌상을 복원하기 위하여 발굴 조사 중 2007년 5월 엮여져 있던 바위 아래에서 부처님의 발 부분의 조각이 발견되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70톤 정도 되는 바위에 전체 높이 5.6m로 새겨진 남산에서 세 번째로 큰 마애불상이다. 육계는 높이 솟아있으며 소발이다. 얼굴은 타원형이며, 코는 오뚝하게 솟았으며, 눈은 아래로 길고 날카롭게 내리 뜨고 있다. 입술은 도톰하고 부드럽게 처리되었고 귀는 매우 크게 표현 되어 있다. 삼도는 입체적으로 표현되었으며, 어깨는 넓고, 가슴은 펴고 있어 당당한 모습이다. 수인은 독특한 양식이다. 법의는 편단우견이고, 옷 주름은 9겹으로 표현되어 있다. 발끝은 밖으로 향하게 벌리고 있어 부자연스러우며, 연화대좌는 5장의 꽃잎을 얇게 조각하고 있다. 불신은 4등신으로 머리가 크다. 우러러 볼 때의 비례감을 고려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연출하였다. 불몸 있는 상호, 날카로운 눈매에서 느껴지는 엄숙함, 특이한 수인 등으로 볼 때 8세기 후반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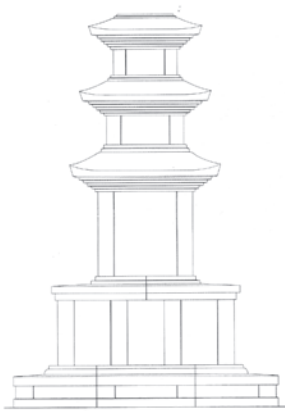


열암곡 3사지³⁴

바위 같은 큰 돌을 ‘ㄱ’자로 깎아 쌓은 웅장한 축대이다. 절터에서 바라보면 전망이 크게 열려 멀리 마석산과 치솔령이 아주 보인다. 절터에는 큰 민묘가 1기 있으며, 축대는 위에서는 잘 보이지 않고 축대 아래 덩굴 속을 뒤져야 보인다. 근세까지 이곳에 양조암이라는 암자가 있었다고 전해지며, 최근까지 1가구의 농가가 살고 있었다. 서쪽 언덕 위에 높이 6m 가량의 큰 석탑이 세워져 있었으나, 지금은 절터에 커다란 석탑 1층 옥개석이 있고, 나머지 탑재들은 허물어져 언덕 아래에 덩굴고 있다. 탑이 있던 곳에는 민묘가 1기 자리 잡고 있어, 이 탑을 허물고 민묘를 조성한 것으로 의심되어 착잡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

탑의 복원도를 보면 이중으로 된 기단의 탱주가 모두 2개씩이며, 옥개석의 층급반침이 5단인 것으로 보아 8세기 중엽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시기에 남산의 남쪽 끝단 깊은 골까지 사찰이 조영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절터의 앞쪽 대나무와 덩굴 속에는 화강암으로 다듬어 만든 오래된 웅달샘이 있다.

열암곡 2사지는 동쪽 계곡 건너에 있으며, 큰 축대 위에 넓이 30×24m 정도의 넓은 절터가 있으나, 기와조각 들만 흩어져 있다.



봉수대³⁵

봉수는 낮에는 연기(烽;봉)를 피워 올리고, 밤에는 불(燧;수)을 피워 올려 변방의 병란이나 사변을 중앙에 알리던 시설이며, 이 곳은 조선 시대 시설이다. 『동경잡기』에 의하면 ‘고위산 봉수는 부의 남쪽 25리에 있으며, 동으로는 동약, 남으로는 소산, 서로는 내포점에 응한다’고 하였다.



침식곡 석조여래좌상³⁶

(지방유형문화재 112호)

이 골은 심수곡이라 하며, 이 절터를 마을 사람들은 석수암(石水庵)이라 한다. 절터 옆에 지금도 솟아나는 석간수(石間水)로 인하여 이름 지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몇 단으로 이루어진 절터는 최근까지 논으로 경작되다가 지금은 숲으로 우거졌다. 이 절터에 머리와 광배가 없는 불상이 있다.

목에는 삼도가 선명하고, 체구는 다소 빈약하지만 가슴은 양감으로 부풀어 올라 근육이 표현된 건장한 남자의 모습이다. 편단우견의 법의는 3단의 넓은 층단으로 거칠게 조각되었으며, 항마촉지인의 결가부좌로 앉아 있다. 대좌는 삼단으로 조성되었으며, 하대석은 거치른 복련이 8잎 조각되었고, 중대석에는 우주(宇宙)가 없으며, 거대한 상대석은 지나치게 무거워 보여 균형이 맞지 않고, 연꽃은 팔엽 단판연화문 위에 화려한 꽃무늬를 장식하였으나 숨씨는 치졸하다. 9세기 말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 백운암과 백운대³⁷⁾

백운암은 고위산 동쪽의 높은 바위산을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곳에서 바라보면 가까이로는 천왕지산이 오른쪽으로 뻗어 있고, 멀리로는 마석산과 치술령이 마주하고 있는 구름 위의 선경이다. 현재의 백운암은 옛 절터에 근대에 세워진 절이다. 현 백운암 아래에 있는 절터는 큰 바위(1.5×2m)를 높이 5m 정도로 포개어 쌓아 놓은 웅대한 축대이다. 축대의 길이는 16m 정도 되고, 동면은 9m 정도 북으로 꺾였다가 다시 동쪽으로 20m 가량 되는 거대한 축대이다. 건축터는 축대 위에 너비 14m 정도 되는데, 기와조각들이 수없이 흩어져 있어 거대한 사원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절터의 동쪽으로 뻗어 내린 산맥은 약 20m 높이의 절벽을 이루어 놓고 아래는 급한 경사로 계속 뻗어내려 갔는데, 이 절벽 바위 위에 건물터가 있다. 바위 틈 사이로 약간의 축대를 보충하여 5×3.5m 정도의 작은 터이지만, 이 터에서 앞을 내려 보면 멀리 산봉우리들이 보일 뿐, 속세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곳이 백운대이다. 구름 위의 선경이다.



남산팔경

1. 황금대 2. 늪비봉 3. 삼릉솔숲 4. 냉골 암봉
5. 남산부석 6. 용장계곡 7. 칠불암과 신선암 8. 천룡고원

전망 좋은 10곳

1. 해목령 2. 늪비봉 3. 황금대 4. 금오정 5. 사자봉
6. 바둑바위 7. 잠능골 석탑 8. 대연화대 9. 신선암 10. 고위봉

경주남산의 지정문화재

1. 국보(1점)	제138호 서출지	제112호 침식곡 석불좌상
제312호 칠불암마애불상군	제172호 오릉	제113호 열암곡 석불좌상
2. 보물(14점)	제173호 일성왕릉	제114호 약수계곡 마애입불상
제 63호 배동 석조여래삼존입상	제186호 정강왕릉	제158호 삼릉계곡 마애석가여래좌상
제124호 남산동 동·서삼층석탑	제187호 헌강왕릉	제159호 삼릉계곡 선각여래좌상
제136호 미륵곡 석조여래좌상	제219호 배동삼릉	제193호 보리사 마애석불
제186호 용장사곡 삼층석탑	제221호 지마왕릉	제195호 배리윤음곡 마애불좌상
제187호 용장사곡 석조여래좌상	제222호 경애왕릉	제206호 백운대 마애불입상
제198호 불곡 마애여래좌상	제245호 나정	제447호 국사곡 제4사지 삼층석탑
제199호 신선암 마애보살반가상	제311호 남산일원	제448호 비파곡 제2사지 삼층석탑
제201호 탐곡 마애불상군	제340호 천관사지	제449호 지암곡 제3사지 삼층석탑
제666호 삼릉계 석조여래좌상	제457호 춘양교지와 월정교지	6. 지방기념물(2점)
제909호 남간사지 당간지주	제533호 인왕동사지	제46호 상서장
제913호 용장사지 마애여래좌상	4. 중요민속자료(1점)	제88호 용산서원
제1188호 천룡사지 삼층석탑	제 34호 김호장군 고택	7. 문화재자료(4점)
제1867호 창림사지 삼층석탑	5. 지방유형문화재(14점)	제6호 남산동 석조감실
제1935호 용장계지곡 모전석탑	제19호 삼릉계곡 마애관음보살상	제13호 남간사지 석정
3. 사적(15개소)	제21호 삼릉계곡 선각옥존불	제600호 지암곡 제2사지 삼층석탑
제1호 포석정지	제94호 입곡 석불두	제601호 기암곡 제2사지 동삼층석탑
제22호 남산신성		

경주남산 유적 답사 안내



코스	연중 시행					3~11월 시행		
	삼릉골	남산탐방길	동남산	서남산	남남산	삼릉골단축	삼릉 가는 길	동남산산책
시간	09:30 ~13:30	09:30 ~16:00	09:30 ~16:00	09:30 ~16:00	09:30 ~16:00	13:30 ~16:30	09:30 ~13:30	09:30 ~13:30
1 토	●					●	●	
일	●	●						
2 토	●					●		●
일	●		●					
3 토	●					●	●	
일	●			●				
4 토	●					●		●
일	●				●			
5 토	●					●	●	
일	●	●						
공휴	●							
출발지	서남산 주차장	월정교 주차장	통일전 주차장	서남산 주차장	서남산 주차장	서남산 주차장	월정교 주차장	통일전 주차장

○ [삼릉골단축], [삼릉가는길], [동남산산책]은 3월~11월까지 운영합니다.

○ 여름방학 기간에는 주중에도 매일 운영합니다.

- 방학 중 월·수·금 : 남산탐방길(단축 코스)
- 방학 중 화·목 : 삼릉골 코스

○ 남산달빛기행(별도안내)

- 모든 답사는 참가비 무료이며 전문 해설사가 동행하여 해설합니다.
- 모든 답사 프로그램은 답사 전날까지 신청하고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 참가신청은 (사)경주남산연구소 홈페이지(www.kjnamsan.org)에서 하면 됩니다.
- 홈페이지에는 보다 세부적인 일정과 운영시간 등이 공지됩니다.
- 문 의 : 054-777-7142
- 제 공 : 전문해설사 동행 해설, 남산지도, 기념엽서 등
- 준비물 : 간식, 생수, 수건, 등산차림, (하루코스)점심도시락 필수
- 참가비 : 없음

경주남산 내비게이션 주소 목록



지 역	목적지	주 소	주차비(1회)	비 고	
동남산	불국 입구	경주시 인왕동 180-3			
	탐국 입구 주차장	경주시 배반동 1132-69		버스 가능	
	탐국 옥룡암	경주시 배반동 1114			
	보리사 입구	경주시 배반동 1132-60		버스 가능	
	보리사	경주시 배반동 산 66-1			
	산림환경연구원	경주시 남산동 725-2			
	화랑교육원 주차장	경주시 남산동 830-5		버스 가능	
	통일전 주차장	경주시 칠불암길 6	무료	버스 가능	
	남산리 탑	경주시 남산동 226-2			
	염불사지	경주시 칠불암길 125			
북남산	사마소	경주시 교동 89-1			
	월정교 주차장	경주시 천원2길 11	유료(미정)	버스 가능	
	상시장 주차장	경주시 인왕동 276-3	무료	버스 가능	
	서남산	오릉 주차장	경주시 탑동 231-1	대2,000, 소1,000	버스 가능
서남산	김호정군고택	경주시 탑동 637-4			
	나정	경주시 탑동 700-1			
	양산재 주차장	경주시 탑동 692	무료	버스 가능	
	일성왕릉	경주시 탑동 855-5			
	포석정 주차장	경주시 남산순환로 816 경주시 배동 527-1	대4,000, 소2,000	버스 가능	
	지마왕릉 주차장	경주시 배동 483-1			
	삼불사 주차장	경주시 포석로 692-25			
		경주시 배동 503-3			
	서남산 주차장	경주시 포석로 647 경주시 배동 725	대4,000, 소2,000	버스 가능	
	약수골 입구	경주시 포석로 530			
황금알오리식당	경주시 포석로 508		버스 가능		
약천오리식당	경주시 포석로 482		버스 가능		
용장리 주차장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428-6				
	경주시 내남면 용장4길 10	대4,000, 소2,000	버스 가능		
뜸수골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730-2				
용산서원	경주시 포석로 110-34		버스 가능		
남남산	열암곡 주차장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299	무료	버스 가능	



경주남산 문화유적담사는,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힐링 역사체험입니다.